



몸짓으로 피울 두번째 봄꽃 “제주를 춤의 도시로”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8일부터 제주국제댄스포럼 상가리 문화공간 마루 개관 댄스빌리지 전략 심포지엄 제주서 첫 무용인한마음축제

‘제주를 춤의 도시로’ 만들려는 발걸음이 한발 더 디딘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가 지난해 이어 두번째 펼치는 ‘제주국제 댄스포럼’이다.

2019 제주 국제 댄스포럼은 봄꽃 만개하는 5월의 마지막을 채운다. 문화공간 마루 개관, 국제심포지엄, 무용인한마음축제가 잇따른다.

문화공간 마루(3월 27일자 8면 보도)는 제주시 예술읍 상가리 유희시설을 5년간 무상 임대해 꾸몄다. 각

계 후원으로 리모델링비를 마련했고 레지던시 시설, 연습실, 전시공간을 갖춘 ‘무용의 집’이 탄생했다. 28일 오후 3시30분 일본 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틀날까지 개관식이 이어진다. 김인희 전 서울발레시어터 단장의 발레 영재 워크숍, 인클로버 재단의 다문화 가정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상가리 주민 즉흥 무용공연, 치매 예방과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등이 예정됐다. 6월 14일부터는 정규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국제심포지엄은 29일 오후 1시30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통한 국제도시 제주의 이미지 고양’을 주제로 열린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기조강연하고 스페인 그랑 카나리아섬 마스 단자 축제 예술감독, 장광열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김태관 제

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가 발제를 맡는다.

29일 오후 7시30분에는 제주아트센터에서 갈라 공연인 ‘무용인한마음축제인 제주’가 진행된다. 무용인한마음축제가 서울을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의 해설로 제주도립무용단, 일본 남스트림스, 광주시립발레단, LDP무용단, 김미애·김용걸, 김철진, 유니버설발레단, 라이징 타이드 댄스 시어터 등 국내외 최정상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28-29일 제주아트센터에서는 리투아니아 단체마(DANSEMA) 댄스 시어터 초청 영유아를 위한 공연·워크숍을 연다. 28일 저녁초예선 청소년 무용놀이 워크숍이 있다. 문의 02)720-620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암한판

<152>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줄 네 : “오메이야- 왕생이가 춤말 품다한 선녀 닳았젠 하는거여계.”
 오 메 이 : “누님- 하늘이 이신 선녀가 품다한 경향맨마슴?” (오메이는 선녀가 얼마나 품다한지 잘 알아지난 웅 귀 자율이명 들었주.)
 하르마지 : “오게, 그초록 품다한 왕생이가 ‘꼬옥꼬옥-’ 울멍 구름 소름 이서 야제길 내밀안 이리저리 슬피단 확 놀겔 패앗주, 경향난 빈찍빈찍한 오방색 놀겔털이 더 빈찍빈찍 하여지멍 터럭털이 닳름에 놀아갓주.”

* 제주어 풀이

“닳았젠 하는거여계 : 닳았다고 하는거야.
 *품다한 경향맨마슴? : 아름다워서 그렇게해요? *얼매나 품다한지 : 얼마나 아름다우지. *야제기(야자기, 야가지, 야게, 야제기) : <이름> ‘모가지’의 다른 말 *슬피단 확 놀겔 패앗주 : 슬피다가 얼른 날개를 뻗어. *경향다 : <그림> 그러하다. *기영 허다’의 준말. *빈찍 : <어제> 빛이 환한 빈찍이며 사라지는 꿈. *빈찍’의 큰말. *놀겔(놀가기, 놀개기, 놀개) : <이름> 날짐승의 날개 따위. *닐름에 놀아갓주 : 바람에 날아갔단다.

-부호- / <이름> <이름> (명사) / <그림> <그림> (형용사) / <움직> <움직> (동사) / <어제> <어제> (부사) / <대어> <대어> (대명사) / <스> <스> (수사) / <느낌> <느낌> (감탄사) / <트> <트> (조사) / <때> <때> (가명사) / <익은말> <익은말> / <속> <속> (출처: ‘제주말 연구’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명도암에서 쓰는 기운생동 ‘삼무일기’

제주 중견 강부언 작가 ‘아트 인 명도암’ 조성 갤러리·카페 등 꾸며

‘삼무일기(三無日記)’라는 이름으로 제주에 살며 느끼는 그날 그날의 감상을 일기처럼 그림에 표현해온 강부언 작가. 30년 이상 오름을 그리는 등 한국화를 넘어 여러 빛깔의 작업 방식으로 제주의 삶과 풍경을

작품에 담아온 그가 제주시 명도암에 갤러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지었다.

‘아트 인 명도암’이라는 이름이 달린 공간에는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섰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을 주제로 약 3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건축물이다. 방문객들이 머무는 동안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건물 2층은 ‘강부언 갤러리’로 ‘기운생동’ 등 강 작가가 지난 10년

가까이 작업해온 ‘삼무일기’ 연작이 걸린다. 약 100㎡ 규모로 앞으로 강 작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자체 심사를 거쳐 도내의 작가의 개인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1층 카페 곳곳에는 강 작가의 손길을 거친 아트 소품이 놓인다. 폐자재를 활용한 벽시계 등 아이디어 상품을 만날 수 있다.

개관일은 오는 18일이다. 강부언 작가는 “나이 60이 되기 전에 이런 공간 하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있는 그대로를 살린 힐링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강부언 작가가 운영하는 ‘아트 인 명도암’ 갤러리,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가 쏘지

불교의식 바라춤 배우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으로 제주불교의식전수관에서 ‘바라춤 배우기’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20명 이내의 성인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문화재단(www.jfac.kr) 공지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goaume@jfac.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800-9145.

국악 뮤지컬 ‘...바보 호랑이’

극단 가람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공연으로 이달 16-17일 ‘제주로 온 바보호랑이’ (이상용 작, 정현주 연출)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우리 가락을 실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국악뮤지컬이다. 첫날 오전 10시10분과 오전 11시20분, 17일 오전 10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연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10-4242, 722-0794.

제주민요보존회 공연 마당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가 이달 18일 오후 2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에서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개 행사를 펼친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 행사에서는 제주노동요와 창민요로 제주섬에서 이어져온 노랫가락을 풀어놓는다. 영주심경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산천초목, 고래고는 소리, 봉지가, 오돌또기, 삼마동동, 용천검, 너영나영 등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64)787-2670.

CGI애니센터 어린이 체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서귀포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에서 ‘신나는 어린이 체험세상’을 운영한다.

이달 24-25일 잇따르는 이번 행사에서는 VR/AR체험, AR색칠놀이, 야외놀이, 과학놀이, 애니메이션 더빙체험 등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첫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둘째날은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4)766-0710.

책이 있는 섬, 비양도 북카페로 오세요

한수풀도서관 15~21일 도서전·체험·공연 다채

한수풀도서관은 비양도를 방문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비양리새마을작은도서관과 비양도 일대에서 ‘제11회 비양도 북 카페’를 운영한다.

북카페에는 수채화동아리 회원 작품과 힐링·자연을 주제로 한 도서 등이 전시되며, 자신이 직접 만든 엽서에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천년의 섬 비양도에서 보내는 편지’도 운영된다. 도서관은 행사가 끝난 후 엽서를 발송할 때 ‘비양도에서 추억 한 컷’을 담은 사진을 함께 동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

디ለ매와 껌잇을 따오는 이용자들에게는 오디청 담그기와 껌잇전을 함께 만들어 먹는 체험과 제주 현무암 팔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밖에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16일에는 기타동아리 ‘등그대당실’이 ‘섬을 위한 노래’라는 주제로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을, 18일에는 음악가 전찬준의 ‘아임 아일랜드(I'm island)’ 힐링 공연, 19일에는 시낭송이 있는 투럼 브러더스의 공연이 잇따른다.

도서관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통해 비양도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책 읽기와 체험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KOREAN AIR 50 years

인도 인도문화탐방 6일

출발일 6/14, 7/12

1인당 1,590,000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슬람 승리의 건축물 꾸뎀미나르
- 세계문화유산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
- 타지마할이 한눈에 보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그라성
- 인도 전통 문신 헤나 체험

제주-서울-델리-자이푸르-아그라-델리-서울-제주

· 포 함 : 왕복항공료(공항세, 출국세, 유류세포함), 일급호텔(2인1실), 식사, 입장료, 한국어가이드, 전용버스, 해외여행보험 · 불포함 : 현지가이드팁 및 운전기사팁(전일정 50 \$ / 1인당), 현지선택관광, 부가세별도

JIBS투어/메인투어 724-8794
제주드림여행사 721-7500
여행정보서비스 746-6900

www.jibstour.com | www.jdkorea.net | www.7466900.com